

2020년 교회 표어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히13:8, 롬1:16-17)

자기백성을 놀라게 하시는 하나님

| 사도신경

| 찬 송 171장

| 기 도

| 성경본문 누가복음 24장 1절 ~ 12절

1.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2.돌아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3.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4.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5.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6.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삼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대 7.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8.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9.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안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10.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돌려 믿지 아니하나 11.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라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 삶 나누기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이 극적으로 회복되었던 일, 혹은 나를 위한 이벤트를 선물로 받아 감동했던 일들이 있었다면 나눠봅시다.

말씀나누기

우리들은 살아면서 예기치 못했던 일들을 겪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서도 그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듯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목도한 제자들이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천사들로부터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들은 제자들은 믿을 수 없는 사실 앞에 놀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십자가의 은혜에 감동하고 부활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명을 다합니다.

자기백성을 놀라게 하시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입니다.

바로 손에 압제를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며 광야를 지나게하시느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세상을 만들고 다스리는 줄로 알고 살아가던 이스라엘에게 은혜와 구속의 은총을 베푸시며 광야길을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속하심 가운데 그 사랑과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백성에게 천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 자신이시며 자기백성들이 창조주의 사랑 안에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 믿음은 내가 하나님께서 가꾸시는 정원에 살아가고 있다는 확신입니다.

자기백성을 놀라게 하시는 하나님은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미래를 열어가시는 소망의 주님이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자손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던 아브라함 이제 자신도 아내 사라도 더 이상 바랄 수 없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황량한 광야의 밤하늘을 보며 못별처럼 번성할 것이라는 약속으로 아브라함을 놀라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랜 기간 기다리다 포기할 즈음에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다시금 아브라함을 놀라게 하시

며 그를 믿음의 조상답게 빚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신 꿈을 꾸던 요셉은 형제들에게 배신당해 노예의 신분이 되고 누명을 써 감옥에 갇히기까지 절망의 상황에 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주님을 꼭 붙잡고 순종하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며 놀라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을 꾸 요셉을 통하여 자기백성 야곱의 일가를 굶어죽을 위기에서 구원하시어 구속의 역사를 이뤄가십니다.

시편 118편 22절과 23절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예수께서 부활하시니 이 말씀 그대로 이뤄졌습니다. 세상에 의해 버려진 모퉁이돌이 건축자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은 어둠으로 저주받았던 자, 그를 따르는 자들이 빛된 자들이요 의인임이 확인된 날입니다. 자기 백성을 놀라게 하시는 하나님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바로 그 절망의 상황을 말씀대로 이루셔서 승리의 날로 이루신 하나님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절망의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나라를 이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놀라움으로 가득 채우십니다.

고아들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영국의 죠지물러목사님이. 어느날 아침 아이들에게 먹일 음식이 다 떨어졌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그러자, 그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십시오” 하고는 아이들 300명과 함께 빈그릇을 들고 식사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끝나자 밖에서 고아원 아이들에게 빵을 구워주고 싶었다는 사람이 찾아와 부족했던 빵을 채워줍니다. 그리고 연이어 우유 실은 수레가 마침 고아원 앞에서 고장나 꼼짝을 안하니 고아원에서 받아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며 기다리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놀라움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놀라움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움을 경험한 자기 백성들을 통하여 세상을 놀라게 하십니다

초기기독교 시대에 오늘 같은 큰 전염병이 두번 찾아왔습니다. 주후 165년-180년에 전염병으로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죽었고 주후 249-262년에는 전염병으로 하루에만 로마시민 5천명이 죽어나갈 정도로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염병은 기독교회를 세계종교로 발흥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당시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었던 이도니시우스는 당시 교회에 대해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처음 질병이 발생하자 아픈 자를 내쫓았고, 가까이 있는 자들은 도망쳤다. 병든 자가 죽기도 전에 거리에 버려졌고, 매장되지 않은 시신을 흠처럼 취급했다. 하지만, 형제 그리스도인들은 병의 위협을 무릅쓰고 병자들을 간호하고 치유했다. 사망이 병자에게서 자신들에게 옮겨온 순간에도 이들은 병자들과 함께 평안과 기쁨 속에 생을 마감했다. 이렇게 해서 교회는 세상을 놀라게 했다.”

왜 나를 깜짝 놀라게 하시는 하나님께 오시지 않습니까? / 내 인생에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 지는 것 같고, 길은 막히는 것 같다는 마음이 생긴다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케 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새일을 행하시는 주께서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자기백성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놀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을 믿어 죽음의 두려움을 덮는 구원의 은총과 구속의 은혜로 세상을 감동시키는 사람들임을 믿고 살아가십시오.

말씀 나눔

1. 누가복음의 기록자 누가는 첫번째 부활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부활에 놀랐다고 했습니다. 왜 이들이 놀랐을까요?
이 놀람이 나의 지금 환경과 상태에 어떤 기대감을 가져다 주니까?
2.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놀라게 하시고, 또한 설레이게 했던 경험이 있다면 반추하여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3. 그 외에 이번 공과 말씀이 주신 은혜, 도전, 격려, 혹은 위로가 있다면 나눠보시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